

국회 종료... 의원·보좌진 일제히 '지역구 앞으로'

광주, 당내홍·싸늘한 민심·신당 바람에 조기 총선체제 전남은 공천률·선거구 획정 등 일단 중앙당 추이 관망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대이동이 일제히 시작됐다.

지역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19대 정기국회 마감과 함께 내년 총선을 대비해 대거 자신들의 선거구로 향하면서 상당수의 의원실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9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각 의원들은 이날 본 예산 처리를 전후해 보좌진들에게 '하방'(지역으로 내려감)을 지시했다. 다만,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아직까지 결론나지 않은만큼 이달 중순께 중앙당 추이를 지켜본 뒤

지역구로 떠날 예정이다.

지역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일제히 지역구로 향한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갈등이 심화하면서 호남 민심이 예전 같지 않는데다 물갈이 여론이 높아지는 등 현역 의원들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때때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정배 신당'과 '박주선 신당' '박준영 신당' 등 호남발(發) 신당 창당에 따른 신당 후보들의 출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역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재자 의원실과 권은희 의원실 보좌진

들은 이달 초 각 지역위원회에 사무실에 집을 풀고 내년 총선 체제로 돌입했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거센 도전으로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남구의 경우 장병완 의원은 비서관 1명을 작년 말부터 파견하는 등 지역위원회를 일찌감치 강화했다.

신당 창당 작업을 준비중인 박주선 의원실은 창당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구로 향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 의원들의 보좌진들도 조만간 1:2진으로 나눠 지역구로 내려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총선체제로 돌입한 이들 보좌진

들은 이달 초 각 지역위원회에 사무실에 집을 풀고 내년 총선 체제로 돌입했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거센 도전으로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남구의 경우 장병완 의원은 비서관 1명을 작년 말부터 파견하는 등 지역위원회를 일찌감치 강화했다.

신당 창당 작업을 준비중인 박주선 의원실은 창당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구로 향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 의원들의 보좌진들도 조만간 1:2진으로 나눠 지역구로 내려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총선체제로 돌입한 이들 보좌진

천정배 신당 명칭 '국민회의'

상징색은 오렌지색



제안없이 국민회의로 하는 것 아니겠냐고 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당의 상징색은 오렌지색으로 결정했다. 정 대변인은 "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9일 신당의 명칭을 '국민회의'(가칭)로 정했다.

추진위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추진위 회의의 결과에 대한 국회 브리핑에서 "풍요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국민이 모이는 열린 정당을 지향하고 정당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당명을 국민회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끌 때 당의 명칭이 '인도 국민회의'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창당해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당의 이름이 '새정치국민회의'였던 점을 고려했다는 게 추진위측이 설명했다.

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회의 앞에 '새정치'나 '개혁' 등 관형어를 붙이지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이 느끼는 모든 좋은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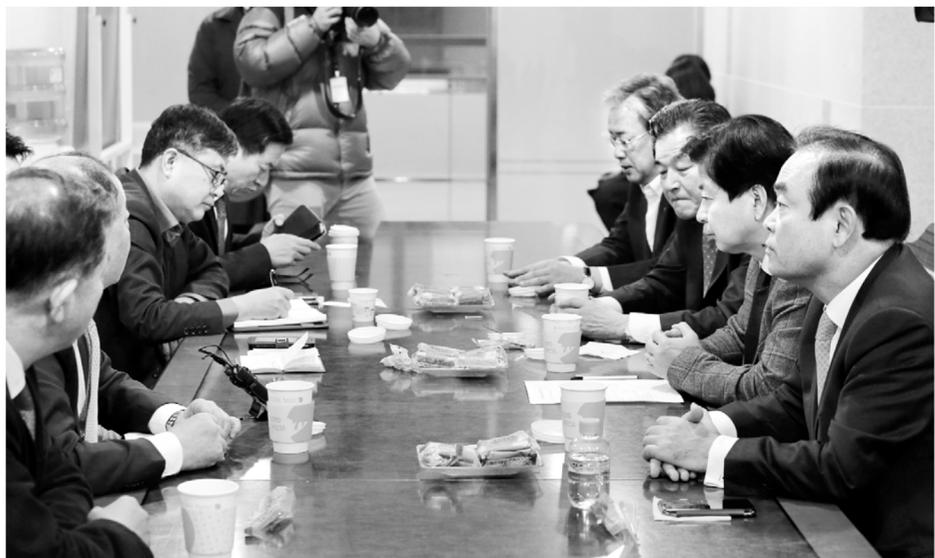
참신하고 열정적이고 모든 특권을 거부하는 젊은 정당 이미지에 맞는 색"이라며 "오렌지 군단이나 오렌지 혁명 등을 연상할 수 있는 참신하고 젊은 색깔"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는 조성은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공보기획, 채수창 한국시민연전연구원 대표, 홍선거 목포대 교수 등 10명을 추진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한편,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통합 정당대회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관련 접촉이 전혀 없다"면서 "통합이란 이름으로 저를 다시 새정치연합에 부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野 '탈당 도미노'...신당 바람 시작되나

윤봉근 전광주시의장 千 합류 전북 조배숙 전의원 등 10명 정상원 등 부산서도 탈당 잇따라



'심각'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결별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국회에서 '구당모임' 비주류 의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인 호남과 친노계(친 노무현계) 안방이나 다름없는 부산에서 야당 지역위원장이 탈당하는 등 '탈당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 탈당 인사들은 천정배 신당 등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신당 바람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 위성부 옛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은 1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전정배 신당' 합류를 선언할 예정이다. 윤 전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는 국민이나 광주시민의 여망과 동떨어졌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실망했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의장은 "새로운 정치질서가 나타나야 할 시점"이라며 "선도적으로 탈당해 대안세력이라고 보이는 천정배 의원의 개혁신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 은 인사들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노계의 뒷받침으로 여겼던 부산에서도 탈당이 줄을 잇고 있다. 정상원 새정치연합 부산 동래구 지역위원장은 9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적 국민정당'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지난 몇 년간 무능과 구태, 패권주의 등 무력한 단면을 보여 준 데 그쳤다"며 "이대로

라던 현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없고 오히려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시작으로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의 동래구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며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부산의 대표적 야권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동래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은 범 친노계로 분류됐던 그의 탈당이 다른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실제 배준현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당원들이 탈당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해정 전 민주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도 '국민정당' 가입을 선언한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낙제점' 19대 국회 마무리

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처리 무산...여야 서로 "네 탓"

여야는 9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끝내 무산시켰다.

여야는 애초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이 법안들에 대해 이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다른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안쟁만 벌이다가 정회하는 등 파행했고, 두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해 결국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 갔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두 법안 심사를 앞두고 물밑 접촉을 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법은 지난 2011년 12월 30일 정부가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까지 1439일(약 4년)째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이 서비스법 처리 무산을 놓고 야당을 성토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경제법 처리가 무산된 점을 내세워 여당 탓으로 돌렸다.

앞서 새누리당 원우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쟁점법안 처리 및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 회동했으나 지난 2일 두 사람이 서명했던 합의문 이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만 벌이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회동을 마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의당, 12일 DJ센터서 총선 전진대회

정의당(상임대표 심상정)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통합 보고 및 총선승리 전진대회(이하 전진대회)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진대회에서는 지난날 22일 정의당과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국민모임과의 통합 경과를 보고하고, 오는 15일 20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총선 승리를 다짐한다.

정의당은 이번 전진대회에서 20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전당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전진대회 이후 나주 충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심상정 상임대표의 특강을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최권일기자 cki@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